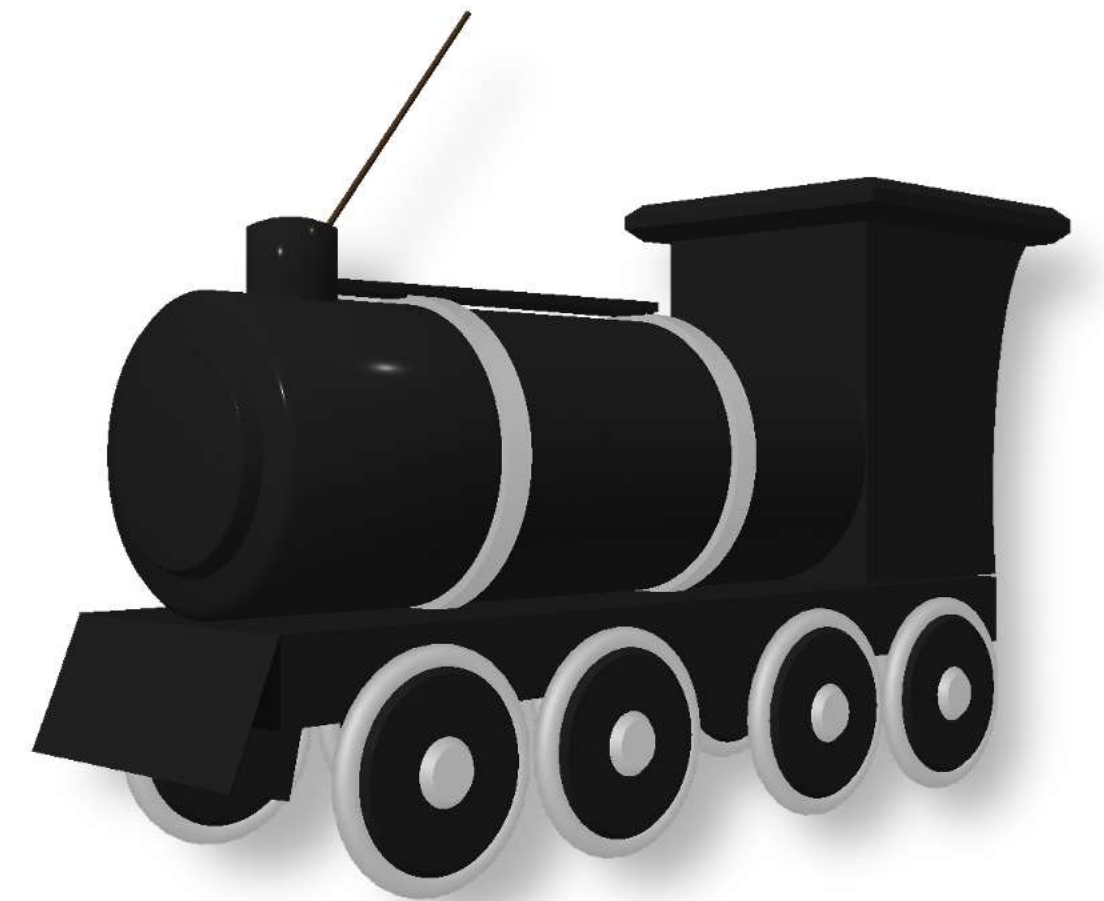


향(鄉)에서 향(香)으로: 평화를 싣고 달리다

평화호 인센스 홀더 & 인센스 스틱



〈작품명〉

평화호 인센스 홀더 & 인센스 스틱

〈기획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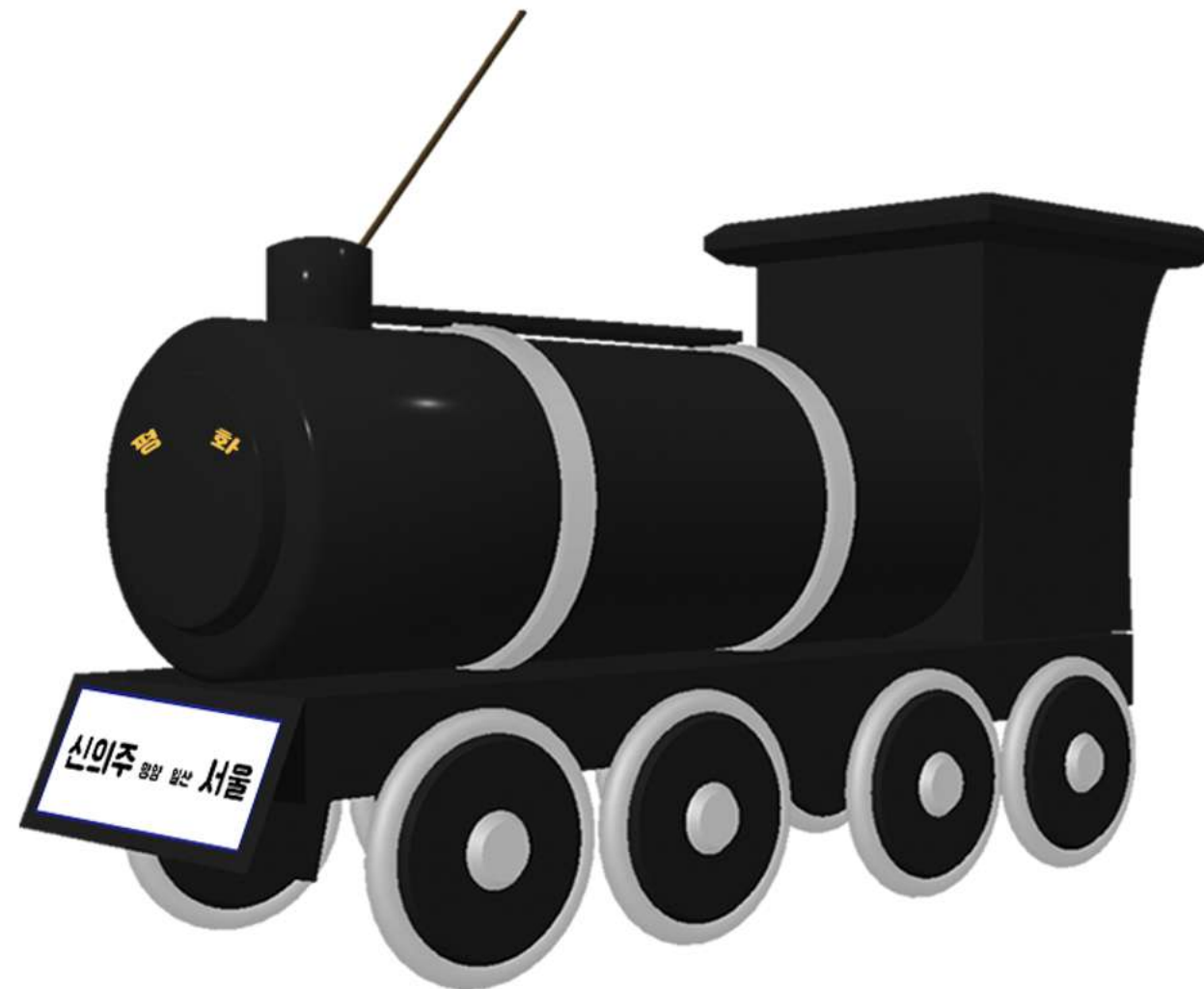
길은 끊어졌지만, 피어오르는 향은 경계를 무시하고 자유로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고향에 갈 수 없는 아픔을 위로하고,
인센스 스틱이 타오르며 퍼지는 향기가 갈라진 땅을 넘어
서로에게 스며드는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평화호는 향(香)을 신고 향(鄉)을 향해 오늘도 달립니다.

평화호 인센스 홀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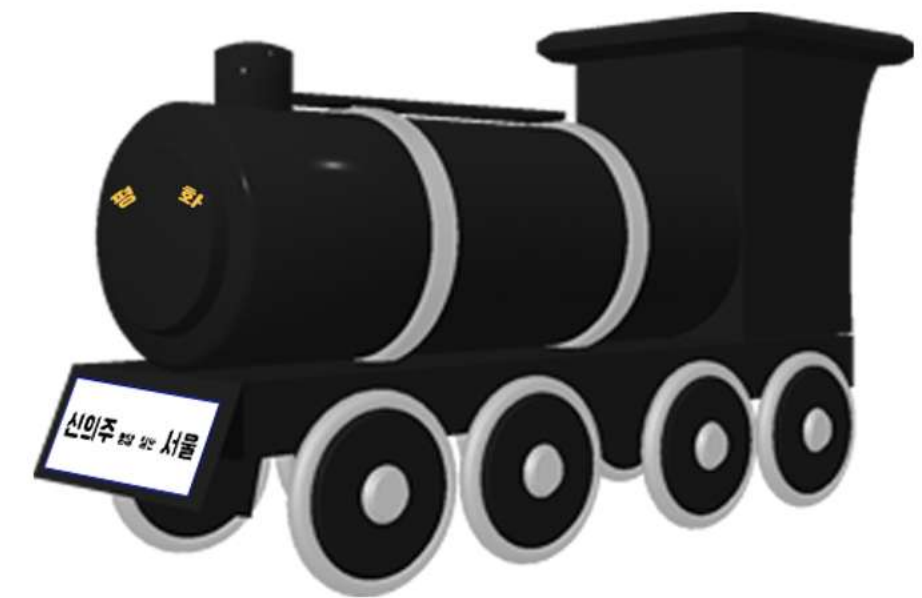
규격 : 약 W 160mm × D 40mm × H 60mm
소재 : 세라믹



정면



측면



측면(인센스 스틱 X)

평화호 인센스 홀더

증기가 배출되는 위치에 인센스 스틱을 꽂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기차가 달릴 때 피어오르는 증기처럼 인센스 연기가 부드럽게 퍼져나갑니다.
기차 등에 평평한 받침대가 있어 인센스의 재가 바닥에 흩날리지 않고
이곳에 모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차의 앞부분에 노선의 핵심 역을 적은 스틱커를 붙였습니다.
과거 분단 이전 우리 민족이 실제로 달리던
대표적인 한반도 철도 노선의 이정표가 새겨져 있어,
역사적 기억과 평화의 염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피우는 노선에 따라 이정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조선해방자호 /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광복 직후 기쁨을 안고 우리 기술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기관차,
‘조선해방자호’의 외형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조선해방자호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자주적인 완전한 독립과 화합의 상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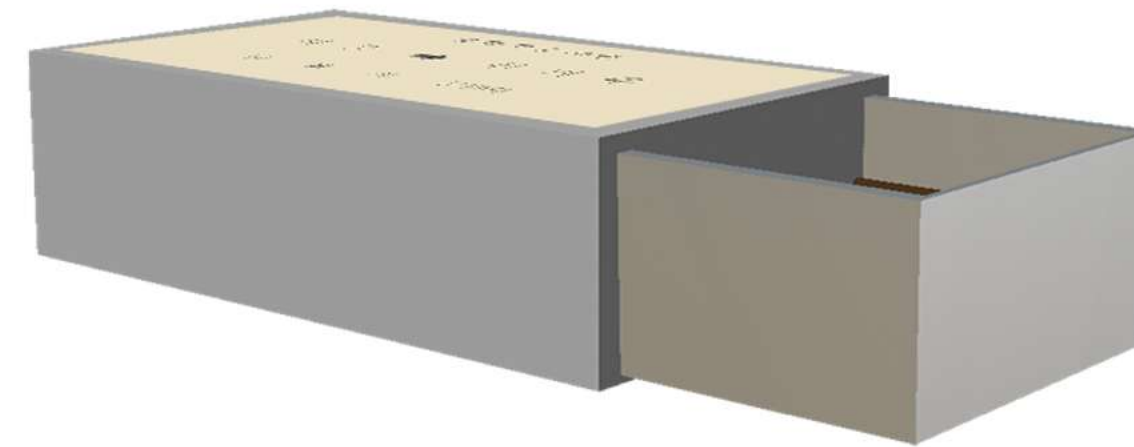
평화호 인센스 스틱

상 자 규 격: 약 W 60mm × D 25mm × H 150mm
상 자 소 재: 재생 크라프트지

인 센 스 규 격: 약 120mm
인 센 스 소 재: 천연 목분, 에센셜 오일



정면



측면

평화호 인센스 스틱



통일호 에드몬슨 승차권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옛날 간이역의 감성과 향수를 자극하는 하드케이스 패키지로, 낡은 종이 티켓의 질감을 재현한 레트로 디자인 굿즈입니다. 기차표를 쥐고 고향으로 향하는 설렘을 불러옵니다.



남쪽의 향(鄕)과 북쪽의 향(鄕)이 만나
단절을 넘어 하나가 되는 평화의 향기(香)를 피어냅니다.

3종의 인센스 스틱은 분단 이후에 넘을 수 없는
경의선(서울-신의주), 동해북부선(안변-양양), 금강산선(철원-금강산)이
지나가는 지역의 분위기를 모티프 삼아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평화호 인센스 스틱

향1: 경의선(서울-신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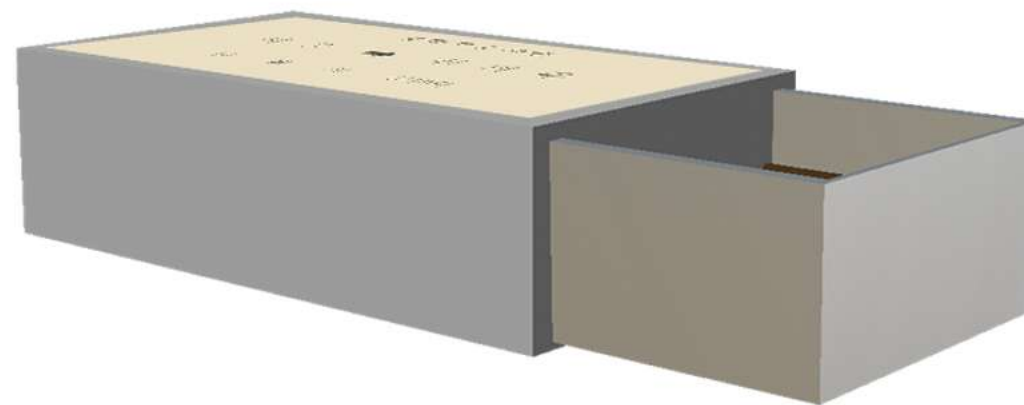
서울의 빌딩숲,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개화기 신의주의 호텔에서
흘러나오는 럼주의 싹쌀함과
부드러운 바닐라.

두 향이 어우러져
알싸한 위스키로 시작해
달달한 바닐라가 퍼지고
헤이즐넛의 고소함이 여운을
남깁니다.

향2: 동해북부선(안변-양양)

과거 석왕사가 자리했던 안변,
깊고 고요한 사찰의 새벽.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양양의 해변,
점음의 활기와 시원하게 치는 파도.

상큼한 라임과 짭짤한 씨솔트,
단정한 나무 향이 만나
세련된 시트러스와 묵직한 우디와 균형을
이룹니다.



향3: 금강산선(철원-금강산)

철원의 백색대지를 훑는 칼바람. 코
끝을 아리게 하는 하얀 눈발.
맑은 물이 바위를 지나며
옥처럼 흐르는 금강산의 옥류동.

철원의 얼어붙은 대지를
표현한 유칼립투스향과
금강산의 신선의 정원이 떠오르는
맑은 꽃향이 어우러져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을 줍니다.